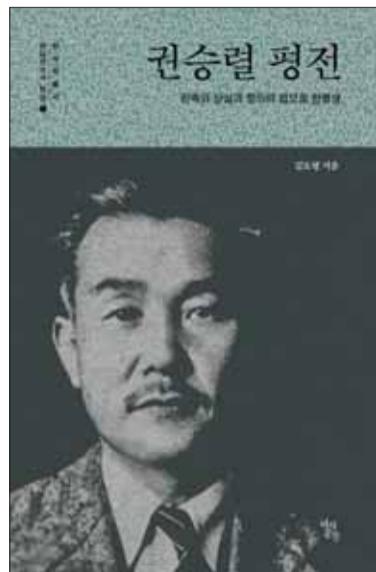


권승렬 평전 (민족의 양심과 정의의 법으로 한평생)

근암(謹菴) 권승렬(權承烈, 추밀공파, 34세, 1895~1980) 장관의 평전이 출간되었다. 근암은 양촌 권근(權近, 16세)의 둘째 아들 지재공(止齋公, 제蹊, 17세)과 연천공(漣川公, 휘모, 18세)의 후손으로 양근공(楊根公, 고종, 19세) 계열이다. 임진왜란 시 금산군수로 왜적과 맞서 싸우다 순국한 충민공(忠愍公, 종悰, 22세)이 12대조이고, 10대조는 양근공의 5대 종손 병조판서 진(縉)이다. 고조부(彌)는 1798년(정조22년) 무과에 장원급제하여 선전관과 부호군을 지냈으나, 증조부(大俊)와 조부(德敬)와 부친(英鎮)은 벼슬길에 들어선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근암은 1980년 사망하기 6년 전에 평생의 재산(淨財) 6천 3백만 원을 안동권씨 중앙문중에 출연하여 안동권씨 후손들의 유일한 장학기관인 능동장학회를 설립하게 하였다.(영가언행록)

근암은 1945년 8.15 해방 후 미군정청 법무부 차장이 되고, 1948년 초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후 법무부 차관을 거쳐 제2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하고 4.19 직후 허정내각에서 제10대 법무부 장관에 다시 임명되어 3·15부정선거 관련자, 부정축재자, 4·19발



포자를 색출하는 일을 맡았다. 일제강점기 시 안재홍, 여운형, 안창호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체포 구금되었을 때 근암은 가인(佳人) 김병로(金炳魯) 등과 함께 무료변론을 자청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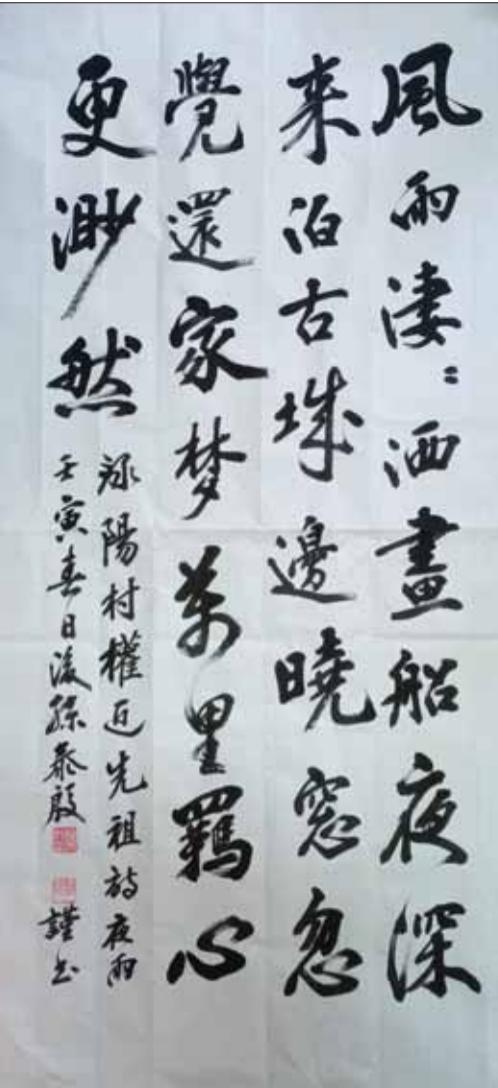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항일변론활동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항일변호사, 무료변호사로 불리어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근암은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마다 법조계 최고위직으로서 시대의 부름에 부응한 한국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사적 인물로서는 크게 조명되지 못했고 근암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김도형씨에 의해 “권승렬 평전”(역사공간)이 출간된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근암에 대한 저술이나 회고 등 기존 연구가 많지 않다 보니 어느 자료에서는 그의 출생지가 안동이라고 하고 어느 자료에서는 서울이라고 하고 있어 근암이 어디에서 출생하였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서용태의 “1920~1930년대 권승렬의 변호사 활동” 논문에서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그는 당시 어느 양반가의 아이들처럼 서당을 다니며 한학을 배웠는데 비교적 일찍 개화한 집안 분위기 때문인지 어려서부터 신학(新學)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며 아마도 독립운동가이자 3.1운동 시 민족대

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던 재종숙 실암(實菴) 권동진(權東鎮)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저자는 같은 논문에서 권승렬은 부모 품에서 한참 응석부릴 나이인 다섯 살에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후 가세마자 기울어서 소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늘 가난과 싸워야 했다. 책 살 돈이 없어 남의 책을 빌려와서는 방 벽지를 뜯어 거기에 내용을 베껴서 공부하면서 줄곧 일 등을 놀치지 않았다고 서술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는 천체집에 앉혀 눈칫밥 먹으며 장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집안 잡일을 다해야 했다고 근암의 부인 유현숙 여사의 구술을 인용하기도 한다. 전혀 다른 내용이 똑같은 논문에 실려 있는 것이다. 이는 근암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도 되어 있지 않음을 방증한다 하겠다.

“권승렬 평전” 출간을 계기로 격변하는 현대사 속에서 법조인으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피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던 근암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고대해 본다.

편집국장 권행완



夜雨(야우)

양촌(陽村) 권근(權近)

風雨淒淒洒畫船(풍우처처세화선)

처향한 바바람 뱃잔에 뿌리는데

夜深來泊古城邊(야심래박고성변)

깊은 밤에 떠와서 옛 성 아래 정박하네

曉窓忽覺還家夢(효창홀각환가몽)

새벽녘 갑자기 집에 가는 꿈을 깨나니

萬里羈心更渺然(만리기심경묘연)

만리의 나그네 마음 다시 아득하네.

壬寅임인 春日춘일

후손 泰殷태은 謹書근서

추억 속의 수인선(水仁線)

권선흥(前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착역이었다. 개통 당시의 역명은 인천항역이었으나, 후에 수인역으로 바뀌고 다시 1955년 7월 1일에 남인천역으로 바뀌었다.

남인천역의 역사는 후기 아르데코 양식의 역사였으며, 수인선의 역답지 않게 상당히 미려하고 규모가 커다고 한다. 남인천 - 송도 구간이 폐선되면서 1973년 7월 14일자로 폐역 조치되었고, 역사마저 사라졌다. 겨우 33년 쓰고 철거되었으니 비운의 역이 아닐 수 없다.

협궤열차리서 맞은 쪽에 앉은 사람과도 얘기하기 좋았고, 오래전 트리과의 충돌사고에서 트리아이 난 기차가 넘어졌다는 신문기사가 났을 정도였다.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나 통학생들이 주로 이용했지만, 일리나 군자 소리역 등에서 인천으로 물건 팔려가는 아낙네들도 많이 탔다. 그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집안을 꾸



남인천역

려나갔을 터.

특히 내게는 각별한 추억이 남아 있다. 고교 3년 내내 7순 넘으신 할머님(1899년 기해생)께서 양식과 반찬을 이고서, 그 먼 인천까지 날라다 주셨다. 누가 짐을 들어주겠다 해도 들고가버릴까 하는 걱정으로 머리에서 내려놓지 않았다고 하셨다. 그런 할머님의 지극한 정성을 생각하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있었으라.

이제는 수인선을 생각만 해도 떠나 표현하기 어려운 냄새와 함께 아련한 추억 속에 잠기게 된다. 나 이 든 탓이 아닐까.



기차안 풍경

행주대첩제 이모저모



백자승 60사단장(기운데), 이대희 주임원사, 권오상 대종회 사무총장 직무대행, 권수웅 대종회 부회장(이상 원쪽 두 번째부터), 권행완 편집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원들이 행주대첩제 기념행사가 끝난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은 지난 20여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행주대첩기념제에 참석하고 있다. 행주대첩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친 권율부대 사단장과 일본인이 만나 한일 우호협력과 평화를 기렸다.



권율부대 백자승 60사단장이 분향하고 있다.



가야금, 아쟁, 대금, 피리, 장구 등 행주대첩제 음악을 담당한 악단

태종 이방원의 부마 제간공과 경안궁주

드라마 태종 이방원이 우여곡절 끝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태종과 양촌 권근은 사돈지간이다. 제간공(齊簡公, 권규·권희, 추밀공파, 17세, 1393~1421)은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의 셋째 아들로 1404년(태종 4) 12세에 태종의 3녀 경안궁주(慶安宮主)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었다. 며느리인 경안궁주가 큰 아들에 이어 둘째도 아들을 낳자 그 소식을 들은 양촌은 시를 지어 그 기쁨을 나누었다.

吾家曾說九封君

우리집을 일찍이 구봉군이라 말하는데

累世偏蒙雨露恩

여러 대를 기울여지게 우로같은 은총을 입더니

此日光榮應倍舊

오늘의 광영은 응당 갑절을 더함이라

眼前已見兩王孫

눈앞에서 두 왕손을 보는도다



제간공과 경안궁주(앞) 묘소

그러나 경안궁주는 슬하에 담(聃)과 총(聰) 두 아들을 남기고 23살인 1415년에 사망하고 말았다. 태종은 세종과 기품이 닮았고 세종만큼이나 어질었던 궁주가 세상을 버리자 외손주들을 궁궐로 데려다 보살피며 시름을 달랬다.

제간공은 문충공의 유후공(公), 근(勤), 관(寬), 신(信) 네 자를 향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첫째, 공이란 사사롭지 않는 것이다. 마음에 물을 이 없으면 일은 펼히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정직이다.

둘째, 근이란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자자근면하여 하루물될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이 뭇쓰게 되고 느슨하게 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충실이다.

셋째, 관이란 까다롭지 않은 것이다. 일이 모두 인후하면 군자의 덕이 후세에까지 경사롭게 미치리라.

넷째, 신이란 망령되지 않는 것이다. 몸을 성실하게 갖고 그 뜻을 굳건하게 하면 스스로 변화됨이 있으리라.

제간공은 부친의 유훈을 가슴에 품고 다닐 정도로 품성이 신실하고 온후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경안궁주가 죽은 지 6년 만에 29살의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부음을 들은 태종은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을 달래며 유제문(諭祭文)을 지었다. “살아서는 부마로서 나를 장인으로 이르면서... 생 각대에 경은 구봉군의 손자요 육예(六藝)를 갖춘 선비의 아들로서 심신과 자질이 한아(閑雅): 조용하고 품위가 있음)하고 학식과 도량은 맑고 평坦하여 깊이 충일되고도 지킴이 있으니 안정되고도 화사함이 없는지라. 내가 그 사람됨을 깊이 신임하여 이에 나의 부마로 삼았도다”라고 술회했다.

세종 3년(1421년) 4월 3일 제강공의 졸기에는 “규는 성격이 온후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가지며, 자기의 생활을 매우 겸소하게 하고, 사랑과 공경으로 어머니를 섬겼다. 자기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쌀을 훔친 것을 청지기가 붙잡아서 아뢰니, 규는 가난한 선비라 하면서 그대로 그에게 주었다. 조정의 사대부들이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석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묘소는 경기도 여주군 청동면 덕령리에 강금산에 위치한다. 일설에 의하면 제간공과 혼인한 경안궁주가 마을 서쪽의 강금산 정상에 올라가 사방 40리

안에서 남의 땅을 밟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버지 태종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후손들은 부마 자손으로서 600여년 동안 대대로 세거하고 있다.

후손 중에는 중국 무장 서호서원 종양 군사정치 학교에서 수학하고 군자금 모집 임무를 떠고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받은 독립운동가 권오돈(權五淳, 35세, 1901~1984) 응이 있다. 1990년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아 국장을 받았으며 그 후 묘는 여주에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했다.

편집국장 권행완